[점성술사 관련] 운명 순응 – 운명 기록관 / 운명 거부 – 운명 개척자

컨셉 정리

* 별자리 이펙트가 화면에 뜸.
* 아르카나랑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황도 12궁은 빼

[운명 개척자]

허공에 별을 던져or뿌려 (신드라 q 같은 느낌) -> 던져진 별들과 캐릭터를 이어. -> 어떤 별을 뿌리는 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별자리가 완성이 돼

만약 별자리를 완성 못하면 or 별들이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별들이 폭발하며 작은 피해를 줘.

만약 별자리를 완성 하면 강한 피해를 줘.

클래스 명칭

* 성운사관(성운 + 사관): ‘별자리를 기록하는 사람’ => 동양풍 캐릭터?  
  하긴 애니츠도 브레이커로 동양풍이긴해
* 아키비스트(archivist): 기록관(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
* 페이트키퍼(Fatekeeper): 운명을 관리하는 사람.
* 운명기록관

로스트아크의 신들은 모두 별자리와 관련이 있음. 신을 숭배하고 떠받들고 신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하던 존재가 신의 존재를 찾아 떠난다 or 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

핵심은 ‘별/별자리’야. 여기서 운명은 자신의 운명을 의미해야 해.   
->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관리/기록한다? 스토리상 너무 밸런스 문제가 있을 듯? 어떻게 약하게 표현할 건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관리/기록하거나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거나 두 컨셉이 있는 거지.

[외형 컨셉]

* 비서장? 같은 느낌. 중년 남성. 키크고.

[종족/뿌리클래스]

* 볼다이크의 현자.
* 에테르
* 대우주-소우주의 유비추론을 받아들인 연금술사에 의해 에테르는 지상계에도 있을 것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졌고, 이는 현자의 돌과도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경 컨셉]

* 헤르메스 주의에 기반. :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 점성술을 이해하여 천체의 흐름에서 개인의 흐름을 대응시킨다.
* 에메랄드 태블릿
  + 서양 연금술 전통의 중심.
  + 거시 우주(우주)와 미시 우주(개인의 영혼)의 대응 관계를 정리한 문서.
* 컨셉에서 에메랄드 태블릿의 활용
  + 최초의 (클래스명) ‘!@#’이 작성한 기록. 모든 (클래스명)의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점성술을 통해 천체의 흐름을 이해하여 연금술의 발전을 바라는 내용들.
* 두 파로 나뉨
  + 헤르메스 주의의 ‘위에서와 같이’에 집중, 인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자. 관측/기록파
    - 별자리에게서 힘을 빌린다.
  + 헤르메스 주의의 ‘아래에서도 그러하다’에 집중, 스스로 신이 되겠다. 개혁/개척파
    -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별자리를 그린다.

배경 스토리 전체를 갈아 엎으려고 해.

로스트아크의 클래스는 뿌리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로 나뉘어. 뿌리 클래스는 전사/암살자/마법사 등 으로 나누는 큰 분류이고, 전사 뿌리 클래스 안에 워로드/버서커/디스트로이어/홀리나이트로 네 가지 파생 클래스가 있어.

이처럼 별과 별자리를 활용하는 컨셉의 캐릭터는 뿌리 클래스가 '현자'라고 정했어. 앞으로 만들 캐릭터의 컨셉은 별과 별자리를 활용하는 현자야. 단, 연금술의 전문가인 '현자'에 별과 별자리를 활용한다는 점성술 컨셉을 부여한 만큼 연금술과 점성술의 모습이 같이 보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다만, 뿌리 클래스인 '현자'는 연금술의 대륙인 볼다이크에서 연금술의 전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고 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등 신앙과 동떨어진 모습이 있어. 그래서 신앙에 관한 배경 스토리를 바꿀거야.

지금 부터 바뀐 배경 스토리 요약이야.

[배경 스토리]

볼다이크의 현자들 중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는 생각으로 별과 별자리를 관측하여 우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술의 발전을 꾀한 '별의 현자'들이 있어. 최초의 별의 현자는 '에메랄드 태블릿'을 만들었고 후대의 별의 현자들은 에메랄드 태블릿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있어.

그러다 점점 스스로 별자리를 그리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게 돼. 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고 별자리의 중심이 되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 이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모습을 바라며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개척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이런 의견을 비판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돼. 이들은 별과 별자리 관측을 통해 발달시킨 연금술을 인간에게 이로운 역할의 범주안에서만 활용하며 인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통파'가 되었어. 이로 인해 별의 현자들은 '개척파'와 '전통파'로 분파가 나뉘게 되었어.

개척파는 인간 스스로 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전통파는 별의 관측을 통해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 이로 인해 전투 방식에도 차이가 생겨.

이런 전투 방식의 차이로 인해 깨달음 노드의 두가지 갈래가 생겨.

[무기 컨셉]

* 에메랄드 태블릿(Emerald Tablet)
  + 별의 현자들의 연금술로 만들어 낸 호문쿨루스.
  + 끈이 달린 휴대용 혼천의

[스킬 컨셉]

* 시저지 :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렬로 위치하는 현상. 일식과 월식
* 오로라
* 광속이동
* 백색왜성
* 웜홀
* 블랙홀/화이트홀
* 마법진 정렬 (닥터스트레인지 타임스톤처럼)

‘별의 현자’

아스트로맨서(Astromancer)

[용어 아이디어]

* 코스모스(질서) <-> 카오스(혼돈)
* 유니버스(전반적인 우주)/스페이스(지구 밖 우주)/코스모스(시스템적)
* 갤럭시
* 스텔라
* 성좌/성운
* 헤르메스주의의 ‘우주 전체의 지혜의 세 부문’ – 태양(연금술), 달(점성술), 별(신성마법-Divine/Black Magic)
* 아스트랄 위버 (Astral Weaver) : 개척파 쪽 깨달음 노드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든다’는 의미)
* 페이트 키퍼 (Fate Keeper) : 전통파 쪽 깨달음 노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지켜 나간다’는 의미)
* Armillary Sphere : 혼천의

조유리 - story of us 중간중간 시계추 소리 (1:26~1:28)

[소개 문구]

* 컨셉: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 대우주(우주)와 같이 소우주(개인)도 그러하다.
* 우주의 흐름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 우주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
* 우주와 같이 무한한 잠재력.

기획 아이디어 정리

[아이덴티티 컨셉]

1. 별 위치 조정(x) 후 폭발(z). (연금술도 강조)

- 별들은 서로 중력이 있어.

- 주변에 별을 흩뿌려 -> 사슬로 흩어진 별들을 캐릭터와 연결해 -> X키로 한 곳에 집중 시켜 -> 별이 N개 이상이 일정 범위내에 모이면 Z키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별들이 하나로 합쳐져 크기가 커졌다가 폭발해.

2. 방향 찾기?

- 아이덴티티 게이지의 모양이 나침반 모양임

- 나침반이 어느 별의 방향(미정)을 가리킴.

- 방향을 찾아 이동(적을 통과하는 이동 스킬이 있음)하여 나침반이 정북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게이지에 별을 하나 기록을 할 수 있음.

- N개 만큼의 별을 기록하면 나침반을 혼천의로 변형(Z)시킬 수 있음.

- 혼천의 모양이 되면 게이지가 감소하며 혼천의처럼 게이지의 틀이 움직여.

3. 신드라 q 같은 z키

- 특정 지점에 별을 불러들임

4. 별자리 그리기

- 게이지 채우고 별의 외곽이 반짝이면 z키로 별을 채워서 빛나게 함. (별자리 모양을 따라서) 총 n단계 까지 있음.

- 역천? 리듬 게임 같은 느낌? (타다닥Z, 타다다닥Z, 타닥Z -> 최종 단계)

2단계

1단계

예시

일반 스킬로 게이지 회복 (게이지회복: 별을 잇는 선이 차오르는 느낌)

5. 우주 전체의 지혜의 세 부문

- 태양(연금술), 달(점성술), 별(신성마법)을 활용

- 스탠스 변환 캐릭터?

6. 별이 있는 위치로 순간이동(워프)? (리퍼 나메 처럼)

- 게이지를 소비하여 워프 가능.

- 이동한 위치에 별무리 흔적을 남김, 이동한 궤적을 따라 긴 은하수가 형성됨. (2개가 한 세트)

- x키를 입력하면 은하수가 폭발하며 피해를 주고 별무리와 은하수가 사라짐.

- 은하수가 교차하는 지점은 더욱 강력한 피해를 줌.

-> 소서의 점멸과도 유사함.

7. 우주의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다뤄?

- 이건 뭔가 깨달음 노드 중 아이덴티티 사용x에 가까운듯.

- 근데 나쁘지 않은게 연금술+점성술의 조합이라 이런 과학적 관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